

2021년 하반기 학술대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간의 삶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융합적 고찰

2021.11.26 (금) 14:00-17:50

한국융합인문학회

한국융합인문학회 2021년 하반기 학술대회

▷ 일시: 2021.11.26.(금) 14:00~17:50

▷ 방식: ZOOM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학술대회

▷ 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간의 삶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융합적 고찰

▷ 주최: 한국융합인문학회

시간	세부 일정
14:00~14:10	■ 개회사: 양윤모(학회장)
【주제 발표】 사회: 송시형(국제사이버대)	
14:10~14:50	■ 노인의 외로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적 친분관계를 매개로 하여 ◦ 발표자: 운동경(카톨릭대) · 신진이(평택대) ◦ 토론자: 박범기(한독교육복지연구원)
14:50~15:30	■ 비정규직 청년의 자존감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연구: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 발표자: 권진(예명대학원대) · 최윤(서강대) ◦ 토론자: 박보영(극동대)
15:30~15:40	중간 휴식
【자유 발표】 사회: 송시형(국제사이버대)	
15:40~16:20	■ 시와 노래의 상관성 연구 ◦ 발표자: 전병준(인천대) ◦ 토론자: 박수현(공주대)
16:20~17:00	■ Constitution of Identity of Second Generation Koreans in Germany ◦ 발표자: 김광선(함부르크대 사회과학연구소) ◦ 토론자: 양재석(성결대)
17:00~17:40	■ 연구윤리교육 ■ 정기 총회
17:40~17:50	■ 폐회사: 양윤모(학회장)

* 학술대회 참가 방법: ZOOM 회의 정보를 ZOOM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연결
(회의ID: 847 1572 7441 / 암호: 6789)

** 학술대회 자료집은 당일 ZOOM을 통해 배부될 예정

2021 하반기 학술대회 인사말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팬데믹의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런데 터널을 나와도 밝은 빛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길고 긴 터널을 빠져나왔더니 밖은 어두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던 2년 전 우리는 학술대회를 외부의 대학이나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해 왔습니다. 우리 학회 구성원들의 경계를 넘어 다른 공간에서 여러 연구자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생각들을 융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우리 모습을 생각해봅니다. 그때는 단조로운 일상에서 탈출하는 것이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일상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창궐을 겪으며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어리석고, 무기력하지만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인간의 가치가 위협받고, 사회적 불평등은 심해질 것입니다. 인문학적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위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은 생물학적 문제와 의료적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교육, 사회, 경제 등 인간의 삶 모든 곳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융합적 사고를 통해 인간의 가치를 바로잡고, 우리의 삶을 일상으로 회복시킬 때 팬데믹으로 인한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간의 삶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융합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약화된 인간의 가치가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학문적 성취를 기원합니다.

한국융합인문학회 회장 양윤모 드림

**노인의 외로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적 친분관계를 매개로 하여**

윤동경(카톨릭대)·신진이(평택대)

(2021- 하반기)

한국융합인문학회 학술대회 발제

**노인의 외로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적 친분관계를 매개로 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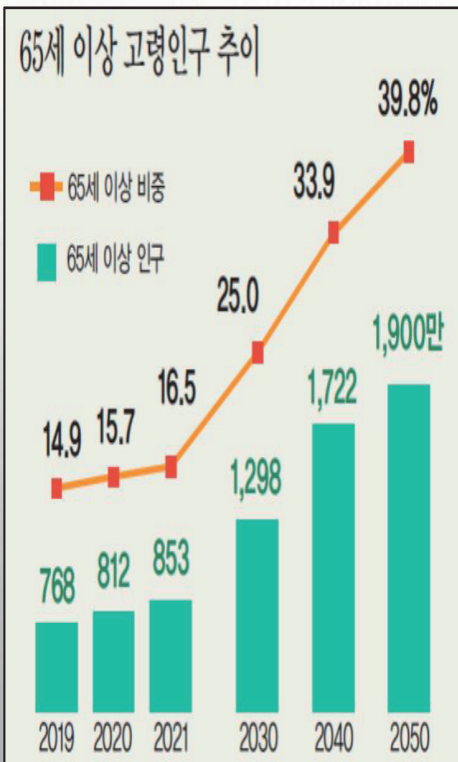
운동경(주저자):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과 박사과정
신진이(공동저자): 평택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과 박사과정

순서

- I. 서론**
- II. 선행연구 고찰**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I. 서론



출처: 백세시대(<http://www.100ssd.co.kr>)

급증하는 노인 1인가구

지난해 혼자 사는 노인 가구는 166만1000가구! 전체 고령자 가구의 35.1%

- 통계청은 10월 2일 “2021 고령자 통계” 발표
-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신체적, 심리적 기능과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 많은 쇠퇴적인 변화의 표시를 드러냄.
-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족구조는 부모와 자녀 간에 친밀함을 형성하고 전통적인 효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가족 간에 화합을 이루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
- 최근 들어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의 위치의 변화, 사회적 친분관계 인식의 변화 등으로 노인들은 친밀감이 아닌 외로움을 경험할 것이라 여겨 짐. (김옥수, 백성희: 2003)

I. 서론

- 노인 인구의 증가와 출산율의 감소는 노인부양의 어려움, 세대단절, 정보격차 등의 문제를 가져오고 이는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문제, 질병, 빈곤, 고독, 무위의 문제 등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김옥, 2010).
- 외로움은 보다 넓은 사회적 관계에 통합하는데 있어 개인적으로 갖는 장애를 의미한다 (MUKHANOVA AND ROMANOVA, 2013: 27).
- 외로움은 노인에게 있어 4고 중 하나로서 역할의 상실, 경제적 능력의 상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한계, 가까운 사람들의 사별 등으로 인해 다른 어떤 생애주기에서 보다 더 깊거나 만성적일 가능성이 크다(양순미·홍숙자, 2003).

I. 서론

- 노인 외로움의 영향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이런 연구들을 종합 하면 노인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최송식·박현숙, 2009; DAHLBERG AND MCKEE, 2014), 사회적 지지(조유향, 2002; 최송식·박현숙, 2009; 한상미, 2011; 강윤희 외, 2012; HOMBRADOS-MENDIETA ET AL., 2013; CHEN AND FEELEY, 2014; DAHLBERG AND MCKEE, 2014) 등이 나타나고 있다(이수천 외: 2014).
- 종합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노인의 외로움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연구결과는 그대로 독거노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 그러나 사회적 친분관계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아 노인들에 대한 정서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노인의 외로움과 사회적지지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II. 선행연구 고찰

• 노인의 외로움

- 1) 노인들은 성인들에 비해 종종 사회적 고립감이나 소외감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외로움은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으로 간주되지만 노인기의 외로움은 많은 변화와 상실이 증가하면서 야기된다(RYAN & PATTERSON, 1987; 이규은 외: 2012).
- 2)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친밀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타인과의 접촉에서 변화와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이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SHEARER & DAVIDHIZAR, 1994).
- 3) 노인은 수입과 신체기능의 감소 뿐 아니라 배우자와 친구들의 죽음으로 인해 많은 변화와 상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DONALDSON & WATSON, 1996; TIJHUIS, DE JONG-GIERVELD, FESKENS & KROMHOUT, 1999).
- 4) 외로움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의 지지망이 양적이나 질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불유쾌한 경험이다(PEPLAU & PERLMAN, 1982).
- 5) 외로움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정신적 안녕을 위협하여 자살의 위험이 증가하기도 한다(STRAYNSKI & BOYER, 2001). 노인들이 경험하는 외로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대부분 만성적인 것이므로 노인의 외로움은 중요한 건강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DONALDSON & WATSON, 1996).

II. 선행연구 고찰

• 노인의 자아존중감

- 1)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로서 어떤 성과를 이루어 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을 의미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다(김소미, 2012).
- 2)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며(김수옥·김유정, 2012),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삶의 욕구에 대응함에 있어 유용한 심리적 자원이다(배진희, 2011).
- 3)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존재 수용과 존중을 포함하며 자신의 존재, 본질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타인으로부터 존경, 인정, 관심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스스로 느끼는 감정으로 사랑, 소속감의 욕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임중철·주경희·임병우, 2012). 특히 노년기는 노화 경험으로 자아존중감이 감소하기 쉬우므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4)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손신영(200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족과 비동거하는 노인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감소에 따라 삶의 질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
- 5) 노년기 노인은 외로움을 경험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의 경우 노년기를 좀 더 안정적으로 경험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정희 외: 2014)

II. 선행연구 고찰

• 노인의 외로움과 사회적 친분관계

- 1)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필요할 때 도움이나 감정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유용한 지지에 대한 만족이다 (SARASON & SARASON, 1985).
- 2) 사회적 지지는 외로움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사회적 관계의 존재 유·무뿐 아니라 관계의 질적인 측면도 외로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옥수, 1999). 사회적 지지의 부족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저하 시키고(김옥수, 1998)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YASUDA 외, 1997) 보고되고 있다.
- 3) 사회적 지지는 개인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 감정적인 결속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한다(HUH, 2000). 사회적 지지 내 구성원들이 제공하는 지지가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정도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회적 지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외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FOXALL, BARRON, VON DOLLEN, SHULL, & JONES, 1993).
- 4) 송준아 외(2007)은 노인들이 경험하는 외로움은 그들이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교류를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정서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 5) 김옥수와 백성희(2003)도 노인의 경우 사회적 지지자의 수보다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이 외로움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서 이들의 지지를 강화 시켜 만족감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외로움에는 이들의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 선행연구 고찰

• 노인의 사회적 친분관계와 자아존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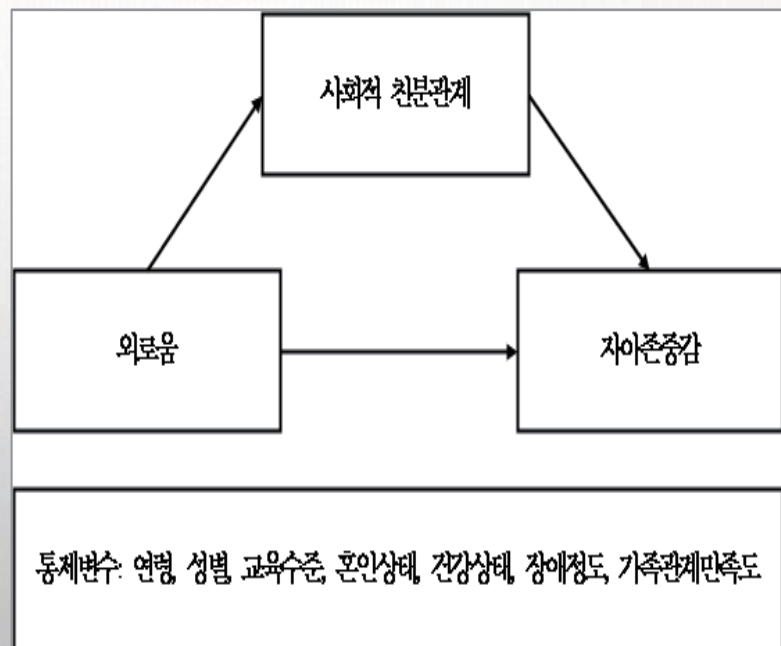
- 1)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이웃, 전문가 등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한다(이경남, 2001; 김정희 외, 2014).
- 2) 노인은 가족과 함께 사회적 관계망 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소외감과 고립감을 감소시키며, 사회적 지지는 노인을 심리적·생리적으로 보호하는 완충역할을 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 완화 및 심리적 적응을 돕고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해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된다(최미선, 2012; 김정희 외, 2014).
- 3)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사회 속에서 타인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재화, 자원, 서비스 등의 물질적·도구적·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데 이러한 행위와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어지는 긍정적 자원이 사회적 지지이다(권중돈, 2012; 김정희 외, 2014).
- 4) 최근 몇몇 연구 보고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은 직·간접적으로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나타내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게 되어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된다(강선경, 2009; 노병일·모선희, 2007; 박순미, 2010; 정순돌, 2005).
- 5) 자녀·친척과의 연락이 많을수록, 가족·친구들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의 공식적 유대관계가 깊을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자존감과 낮은 우울수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노병일·모선희, 2007).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 연구모형

<그림1> 연구모형



III. 연구방법

2) 연구가설

첫째, 노인의 외로움이 사회적 친분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노인의 외로움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노인의 사회적 친분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노인의 외로움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사회적 친분관계가 매개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2. 분석 자료 및 연구대상

- 본 연구는 노인의 외로움이 사회적 관계를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음.
- 분석을 위해 활용한 데이터는 제15차(2020년)년도 한국복지패널을 분석
-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6,460가구 중 총 6,029가구가 조사대상
- 조사에서 표본수가 많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는 표본오차가 작아지고, 현실적으로는 세부 단위까지의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조사임을 의미함.

III. 연구방법

3. 변수 및 측정 도구

- 1) 독립변수: 외로움, 단일문항으로 제시 1~4점
- 2) 매개변수: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 단일문항으로 제시 1~5점
- 3) 종속변수: 자아존중감, 단일문항으로 제시 1~4점
- 4) 통제변수: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건강상태, 장애정도, 가족관계만족도

III. 연구방법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기초 분석을 시행.

둘째, 노인의 외로움, 자아존중감, 사회적 친분관계의 기초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실시.

셋째, 노인의 외로움, 자아존중감, 사회적 친분관계의 기초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

넷째, 노인의 외로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친분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노인의 외로움을 독립변수로, 사회적 친분관계를 매개변수로,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BARON AND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SOBEL, 1981)를 실시함.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2>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빈도(명)	백분율(%)
연령	연속형 변수	77.36±7.34	4852	100
성별	남		1853	38.2
	여		2999	61.8
교육수준	무학		818	16.9
	초등학교		1953	40.3
	중학교		913	18.8
	고등학교		843	17.4
	전문대학		45	0.9
	대학교		232	4.8
	대학원(석사)		44	0.9
	대학원(박사)		4	0.1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		2775	57.2
	배우자 없음		2077	42.8
건강상태	아주 건강하다		34	0.7
	건강한 편이다		1221	25.2
	보통이다		1679	34.6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1698	35.0
	건강이 아주 안 좋다		220	4.5
장애정도	비장애인		3981	82.0
	장애인		871	18.0
가족관계 만족도	매우 불만족		30	0.7
	대체로 불만족		154	3.4
	그저 그렇다		814	17.9
	대체로 만족		3303	72.8
	매우만족		239	5.3

IV. 연구결과

2. 주요변수 기술 통계량

<표 3> 주요변수 기술 통계량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외로움	1	4	1.40	.653	1.666	2.508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	1	5	3.58	.652	-.892	.734
자아존중감	1	4	2.52	.734	-.182	-.281

IV. 연구결과

3. 주요 변수 상관관계 분석

<표 4> 주요변수 상관관계 분석

	외로움	사회적 친분관계	자아존중감
외로움	1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	-.232**	1	
자아존중감	-.231**	.313**	1

** $p < .01$

IV. 연구결과

4. 매개효과 분석

<표 5> 매개효과 분석

		Model 1			Model 2			Model 3			
		독립→매개			독립→종속			독립+매개→종속			
		B	S.E	β	B	S.E	β	B	S.E	β	VIF
독립변수	외로움	-.142	.015	-.142***	-.137	.017	-.121***	-.103	.016	-.092***	1.215
매개변수	사회적 관계							.234	.016	.208***	1.164
통 제 변 수	연령	-.008	.001	-.087***	-.012	.002	-.119***	-.010	.001	-.101***	1.220
	성별	.044	.021	.033*	.029	.024	.019	.018	.023	.012	1.326
	교육수준	.020	.008	.041*	.076	.009	.136***	.071	.009	.128***	1.337
	혼인상태	.034	.021	.026	-.055	.023	-.037*	-.062	.023	-.042**	1.344
	건강상태	-.095	.011	-.125***	-.152	.012	-.178***	-.130	.012	-.152***	1.183
	장애정도	-.064	.025	-.037**	-.047	.027	-.024	-.032	.027	-.016	1.046
	가족관계 만족도	.241	.015	.228***	.135	.017	.113***	.078	.017	.066***	1.143
상수		3.669			3.498			2.640			
adj R ²		.139			.164			.201			
F		92.948***			111.910***			127.513***			

* $p < .05$, ** $p < .01$, *** $p < .001$

IV. 연구결과

<표 6> 매개효과 Sobel Test 결과

매개효과 검증(Sobel Test)		
매개효과 경로	Z값	매개 구분
외로움 → 사회적관계 만족 → 자아존중감	5.3232***	매개효과 유의

*** $p < .001$

V. 결론 및 논의

- 첫째, 외로움과 사회적 친분관계만족은 모두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노인의 외로움이 낮을 수록,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둘째,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은 노인의 외로움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 확인되었다.
- 이는 사회적 친분관계에 양적 접근보다는 당사자의 주관적 측면에 대한 접근이 중요함을 확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 연구결과 해석에 있어서도 선행연구들과 온전한 일치도로 설명하고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을 보일 수 있다.
- 특히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이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각각의 문항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들이 임의로 정의했기 때문에 실제로 대상자들이 설문문항을 해석한 의미와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사회적 친분관계가 가지는 다차원적 특성 즉, 사회적 친분 간의 갈등, 의사소통, 의견일치도 등 복합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차원적 탐색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선경. (2009).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원이 우울증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2), 629-643.
- 강윤희, 김미영, 이경정, 정덕유, & 마예원. (2012). 지역사회 노인의 사회적 지지, 고독감, 수면의 질, 지각된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6(2), 303-313.
- 권중돈(2012),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김옥수, 백성희 (2003). 노인의 외로움과 사회적지지, 가족기능 간의 관계 연구.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3), 425-432
- 김옥 (2010), “한국노인과 미국노인의 노화불안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47 : 71-94.
- 김희주, 주경희, “한국적 성공적 노후척도를 활용한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41권, PP.125-158, 2008.
- 김수옥, & 김유정. (2012). 맞춤형 실버로빅 운동이 요양시설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무력감,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노인간호학회지*, 14(1), 50-57.
- 김정희, 김옥, 김숙향, 이경준. (2014).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64(0), 323-343.
- 노병일, 모선희. (2007). 사회적 지지의 수준과 차원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7(1), 53-69.
- 이규은, 염영희, 한정희.(2012).노인의 건강상태, 여가 만족 및 외로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기본간호학회지*,19(4),483-492.
- 이경남(2001) , “노인과 사회적 지지”, 부산여자전문대학논문집 23 : 303-346.
- 성미혜, 임영미, 주경숙. (2011). 여성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5(1), 95-106.
- 이수천, 강선옥, 장미정, 윤승비. (2014).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영성이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가족복지학*, 44(0), 139-161.
- 배진희. (2012). 주거 관련 요인이 농촌 지역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2, 1-25.
- 임중철, 주경희, & 임병우. (2012). 노인의 일자리참여활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7, 29-50.
- 손신영. (2006). 농촌 노인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과의 관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7(2), 176-185.
- 송준아, 장성옥, 임여진, 이숙자, 김순용, 설근희 (2007). 노인의 외로움의 영향요인 분석: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기본간호학회지*,14(3), 371-381.
- 김옥수. (1998). 사회적 지지가 미국 이민노인의 외로움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10(2), 311-321.

참고문헌

- 양순미, 홍숙자.(2003). 농촌노인의 독거·동거 가구형태가 심리적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연구*, 21(6), 129-139.
- 최미선(2012), "재가노인의 사회적 지지, 인지기능 우울간의 관계",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순돌. (2005). 시설거주 노인의 우울증 원인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노년학*, 25, 75-90.
- 박순미. (2010).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연구-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특성 비교. *노인복지연구*, 47(1), 137-160.
- 최송식, & 박현숙. (2009). 노인의 고독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도농복합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4), 1277-1293.
- 조유향. (2002). 농촌노인의 고독감, 우울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한국농촌의학회지*, 27(1), 87-98.
- 한상미. (2011). 노인의 사회적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여가만족과 고독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3), 157-182.
- MUKHANOVA, I., & ROMANOVA, V. (2013). POSITIVE EXPERIENCING OF LONELINESS AS A FACTOR OF PERSONALITY. *SOCIAL WELFARE: INTERDISCIPLINARY APPROACH*, 1(3), 19-30.
- DAHLBERG, L., & MCKEE, K. J. (2014). CORRELATES OF SOCIAL AND EMOTIONAL LONELINESS IN OLDER PEOPLE: EVIDENCE FROM AN ENGLISH COMMUNITY STUDY. *AGING & MENTAL HEALTH*, 18(4), 504-514.
- HOMBRADOS-MENDIETA, I., & COSANO-RIVAS, F. (2013). BURNOUT, WORKPLACE SUPPORT,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SOCIAL WORKERS IN SPAIN: A STRUCTURAL EQUATION MODEL. *INTERNATIONAL SOCIAL WORK*, 58(2), 228-246.
- CHEN, Y., & FEELEY, T. H. (2014). SOCIAL SUPPORT, SOCIAL STRAIN, LONELINESS, AND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AN ANALYSIS OF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1(2), 141-161.
- RYAN, M. C., & PATTERSON, J. (1987). LONELINESS IN THE ELDERLY.
- SHEARER, R., & DAVIDHIZAR, R. (1994). IT CAN NEVER BE THE WAY IT WAS HELPING ELDERLY WOMEN ADJUST TO CHANGE AND LOSS. *HOME HEALTHCARE NOW*, 12(4), 60-65.
- DONALDSON, J. M., & WATSON, R. (1996). LONELINESS IN ELDERLY PEOPLE: AN IMPORTANT AREA FOR NURSING RESEARCH.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4(5), 952-959.

참고문헌

- 양순미, 홍숙자.(2003). 농촌노인의 독거·동거 가구형태가 심리적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연구*, 21(6), 129-139.
- 최미선(2012), "재가노인의 사회적 지지, 인지기능 우울간의 관계",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송식, & 박현숙. (2009). 노인의 고독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도농복합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4), 1277-1293.
- 조유향. (2002). 농촌노인의 고독감, 우울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한국농촌의학회지*, 27(1), 87-98.
- 한상미. (2011). 노인의 사회적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여가만족과 고독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3), 157-182.
- MUKHANOVA, I., & ROMANOVA, V. (2013). POSITIVE EXPERIENCING OF LONELINESS AS A FACTOR OF PERSONALITY. *SOCIAL WELFARE: INTERDISCIPLINARY APPROACH*, 1(3), 19-30.
- DAHLBERG, L., & MCKEE, K. J. (2014). CORRELATES OF SOCIAL AND EMOTIONAL LONELINESS IN OLDER PEOPLE: EVIDENCE FROM AN ENGLISH COMMUNITY STUDY. *AGING & MENTAL HEALTH*, 18(4), 504-514.
- HOMBRADOS-MENDIETA, I., & COSANO-RIVAS, F. (2013). BURNOUT, WORKPLACE SUPPORT,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SOCIAL WORKERS IN SPAIN: A STRUCTURAL EQUATION MODEL. *INTERNATIONAL SOCIAL WORK*, 58(2), 228-246.
- CHEN, Y., & FEELEY, T. H. (2014). SOCIAL SUPPORT, SOCIAL STRAIN, LONELINESS, AND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AN ANALYSIS OF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1(2), 141-161.
- RYAN, M. C., & PATTERSON, J. (1987). LONELINESS IN THE ELDERLY.
- SHEARER, R., & DAVIDHIZAR, R. (1994). IT CAN NEVER BE THE WAY IT WAS HELPING ELDERLY WOMEN ADJUST TO CHANGE AND LOSS. *HOME HEALTHCARE NOW*, 12(4), 60-65.
- DONALDSON, J. M., & WATSON, R. (1996). LONELINESS IN ELDERLY PEOPLE: AN IMPORTANT AREA FOR NURSING RESEARCH.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4(5), 952-959.

참고문헌

- SARASON, B. R., SARASON, I. G., HACKER, T. A., & BASHAM, R. B. (1985). CONCOMITANTS OF SOCIAL SUPPORT: SOCIAL SKILLS, PHYSICAL ATTRACTIVENESS, AND GEND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2), 469.
- YASUDA, N., ZIMMERMAN, S. I., HAWKES, W., FREDMAN, L., HEBEL, J. R., & MAGAZINER, J. (1997). RELATION OF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S TO 5-YEAR MORTALITY AMONG YOUNG-OLD VERSUS OLD-OLD WHITE WOMEN IN AN URBAN COMMUNITY.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45(6), 516-523.

노인의 외로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적 친분관계의 매개 효과에 대한 토론문

박범기(한독교육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1. 본 발제문의 대상인 노인에 대한 연구에 대해 환영합니다. 발제문의 서론에서도 서술했듯 한국은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은 피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현실적인 통계들은 이를 입증합니다. OECD국가 중 노인빈곤률 및 노인자살률 1위를 십수년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발제문의 서론에서도 명시한 노인의 4고(苦)는 한국 노인들의 생활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료됩니다. 특히 한국은 2017년 전체인구의 14%가 65세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18년 치매국가책임제도를 천명할 정도로 <노인문제>는 사회구조적으로 시급하고도 중요한 복지적 과제이자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시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본 발제문의 주요변수인 노인의 외로움, 사회적 친분관계, 자아존중감은 좋은 변수선택이라 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의 외로움은 노인의 4고(苦) 중 가까운 사람들의 사별이나 역할의 상실로 인해 직접적으로 겪어야 되는 주요 감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자아효능감이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역할의 상실 및 경제적 능력 상태인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은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아존중감이 높아야 노인의 일상생활 및 여타 사회적 활동등이 가능하리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변수도 적절하게 선택했다고 봅니다. 사회적 친분관계는 본 발제문에서 사회적 지지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의 상실로 고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노인에게 복지적 관점에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사회적지지인 사회적 친분관계는 노인의 외로움과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이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맥락적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는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 본 발제문의 서론부터 결론까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론은 논문의 문제의식과 배경,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논리적으로 서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발제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추이 및 전통적가족구조에서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의 외로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기술해주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인의 외로움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도 덧붙여 서술해 주셔서 논의를 풍성하게 해 줍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노인의 외로움과 자아존중감의 변수관계 필요성과 유의성에 대해 논증해주셨습니다. 또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존연구의 부족함을 밝혀내 이 변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적연구에서는 통상 종속변수는 사회현상 내지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역할로써 위치합니다. 이 종속변수로 상징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그 원인들을 찾아서 제언이나 시사점, 함의부분에서 실천적, 정책적인 논의를 펼치는데 양적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발제문이 논문으로 발전된다면 서론에서 종속변수인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논의후 원인에 해당하는 노인의 외로움에 대한 서술순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 매개변수인 사회적 친분관계를 독립변수인 외로움과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연결해서 유기적으로 구성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본 발제문은 이론적 배경 장(章)이 아니라 선행연구 고찰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외로움, 노인의 자아존중감, 노인의 외로움과 사회적 친분관계, 노인의 사회적 친분관계와 자아존중감에 대해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본 연구의 변수들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와 논의들을 살펴볼 수 있기에 이 부분도 정리를 잘 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양적연구에 있어서 2장에 해당하는 이론적 배경이나 선행연구 고찰 부분은 뚜렷한 역할과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주제에 해당하는 변수들에 대한 기존 논의를 <유기적으로 엮는 것>, <기존 연구의 동향과 방향 및 한계>부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발제문이 논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지 기존선행연구의 결과만 병렬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기존 연구들을 유기적으로 엮는것, 기존연구의 동향과 방향 및 한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양적연구 중 <매개변수>를 사용한 연구입니다. 그렇다면 독립변수인 노인의 외로움과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의 인과관계, 노인의 외로움과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인과관계, 사회적 친분관계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과관계 즉 3차원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등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본 연구자는 3개의 인과관계 중 2개의 인과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를 하셨습니다. 차후 노인의 외로움과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선행연구 부분도 정리하시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연구방법에서 분석자료를 <제15차(2020년)년도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해서 4852명을 연구대상으로 진행 하셨습니다. 발제자들께서 설문지를 사용해서 일일이 설문조사를 하는 것보다 전범위에 해당하는 패널을 활용하신 것은 연구의 신속성과 편의성 및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라 사료됩니다. 측정도구도 주제의 변수에 맞게 패널데이터에서 추출해서 분석하셨습니다. 다만 측정도구를 서술하실때 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일문항의 보기값이 리커트 척도인지? 보기값의 1점~5점까지의 보기문항도 적시해 주시면 측정도구의 서술이 명확해 질 것 같습니다. 덧붙여 각 변수의 단일문항에 대한 설문지의 질문도 몇 개정도 예를 넣어 주셨다면 측정도구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기술이 좀 더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자료분석방법은 무난히 연구문제와 잘 매칭되게 서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4) 분석결과의 서술도 연구문제와 자료분석방법의 순서와 일치되게 서술하셨습니다.

5) 결론 및 제언부분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 연구결과에 근거한 정책 및 프로그램 제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발제문은 무난하게 결론 및 제언부분을 서술했다고 봅니다. 다만 본 발제문을 학술논문으로 발전시키려 한다면 현재의 발제문보다는 결론 부분을 구조화 시키고 내용을 풍부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토론자가 이 부분에서 이야기 했듯 결론 및 제언부분은 결론의 요약과 제언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제언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적 실천과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제언입니다. 이 부분이 풍성하게 서술되면 될수록 양적연구로서의 가치가 입증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본 연구자가 <결론 및 논의>라고 구성한 부분을 <결론 및 제언>혹은 <결론 및 함의>정도로 수정해 주시면 한층 나올 것 같습니다.

4. 본 연구의 대상과 주제는 상당한 연구가치와 시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론부터 결론까지 주제의 내용과 논의가 일관적으로 서술되었습니다. 다만 본 토론자가 상술(上述)한 부분들만 신경을 써서 차후 연구논문에 반영한다면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제지분들의 연구에 대한 노고와 학술대회 때 발제하시느라 수고하신 부분 치하드립니다.

**비정규직 청년의 자존감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연구: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권진(예명대학원대)·최윤(서강대)

비정규직 청년의 자존감과 인터넷중독에 관한 연구 :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조절효과

권진(예명대학원대학교)

최윤(서강대학교)



1



1. 연구의 필요성

- **코로나19 시대의 정신건강 (중독포럼 실태조사, 2020.06.)**
 - 전반적인 음주, 흡연량 감소
 - but 주 4회 이상 음주 (변화가 없다+늘었다, 61.9%)
 - 온라인 게임 24.4%, 스마트폰 이용 44.3% 증가
 - 도박, 음란물 등 성인용 콘텐츠 이용량 증가
 - 단타성 주식매매, 불법 경륜 등 불법 도박 사이트 횡행
- 직장/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사회적 관계 실업으로 상실
 - 자존감 ↓ 좌절, 절망감 ↑
- **코로나 장기화 → 디지털 중독 위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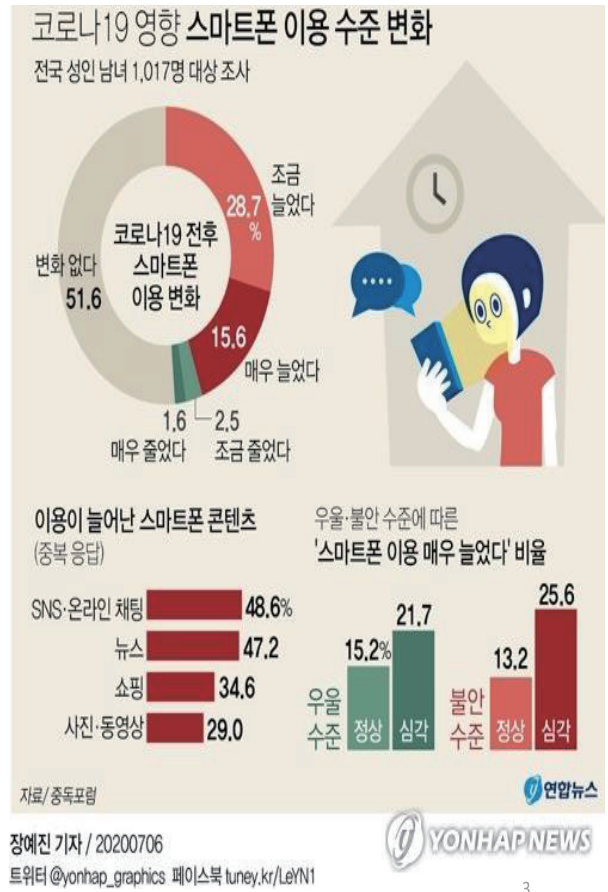
2

1. 연구의 필요성

-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 급증

• **“코로나 블루” 겪는 사람일수록 디지털 매체에 과의존할 위험이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스마트폰 사용시간 증가 44.3%
- SNS·온라인채팅 - 뉴스 - 쇼핑 - 사진·동영상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게임 시간 증가 24.4%
- 우울/불안할수록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디지털 의존도 높은 경향
- 우울/불안할수록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 대폭 증가 경향
- 코로나19로 다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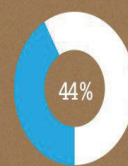
1. 연구의 필요성

- "언택트(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우울·불안감을 강화하고, 그것이 또 다시 디지털 중독으로 이어지는 모습"
- "지속가능한 언택트 사회를 위해서는 행위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디지털 미디어 활동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



코로나블루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져서 우울감을 높이고 디지털 중독으로 이어져..



중독포럼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 44%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 사용시간 증가

1. 연구의 필요성

- 한국 청년은 인터넷 이용률이 매우 높은 집단이자, 동시에 코로나19에 취약한 사회적 특성을 보임.
- 2019년 기준 20대와 3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각각 99.9%, 100%에 이르며(한국정보화진흥원), 동시에 심리정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음(이은환, 2020: 13). 또한 청년층의 고용불안정이 높아지고 고용하락폭이 심해지는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일자리위원회, 2020)
- 이러한 상황속에서 청년들은 비정규직, 임시직, 플랫폼 노동에 내몰리고 있어 이러한 불안정 속에서 손쉽게 접하는 인터넷 기반의 생활이 증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5

2.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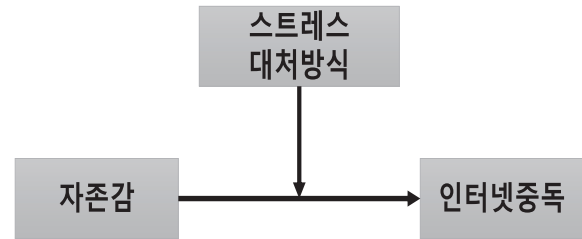
1) 자존감과 인터넷 중독

- **Goldberg**
 - 인터넷 중독은 일상생활에서의 심각한 문제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려는 개인의 적응적인 방어기제
 - 현실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지 못하거나, 부적절감을 느낄수록 온라인 가상공간에 더욱 몰입하여 충족되지 않은 심리적인 욕구를 해소
- 익명성, 가상세계를 현실로 착각 (Rheingold, 1996; Suler, 1996)
- **Higgins(1987)** 자기불일치 관점 이론 ①실제자기, ②이상적 자기, ③의무적 자기
 - 인터넷 중독자의 경우 반복된 강화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의 이상적 자아와는 달리, 실제 자아에 대해 낮은 만족감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

6

2. 이론적 배경

2)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인터넷 중독



- 스트레스 해소이론 (stress reduction theory)

- 중독자들은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방법으로 특정 대상에 의존/집착한다.
- 현실로부터 도피처 = 중독물질, 대상, 관계 등등

- 스트레스를 직면하지 않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것

3) 그 외

- 이우연 (2004). 인터넷 중독, 비중독 집단간의 자존감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차이분석.

- 중독집단: 낮은 자존감, 낮은 문제중심적 대처방식, 높은 정서중심적 대처방식, 낮은 사회적지지 대처방식

7

3. 연구방법

-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20년 4대중독 데이터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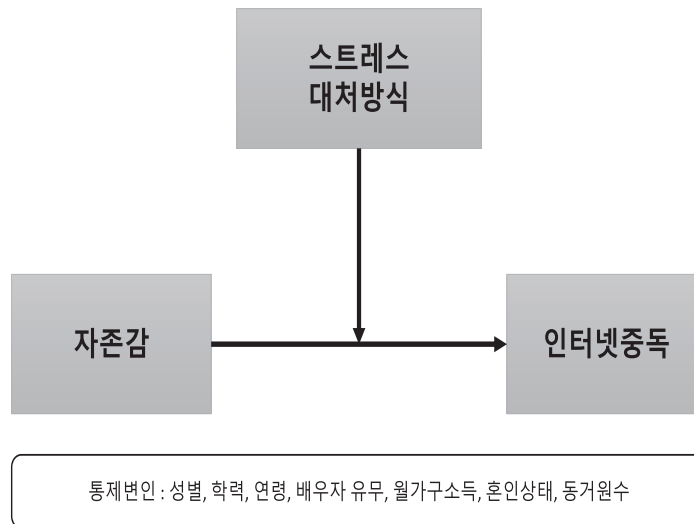
- SPSS 23.0 통계패키지 활용,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 PROCESS MACRO를 활용한 조절효과 검정

8

3. 연구방법

• 연구모형



9

3. 연구방법 - 측정도구

1. 한국판 상태자존감척도 (K-SSES)

- Heatherton & Polivy (1991)의 “State Self-Esteem Scale (SSES)” 번안 · 수정
- (수행자존감 8) + (일반자존감 8) + (사회자존감 4) = 총 20문항
- **상황적 요소에 따른 변화양상/추이를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상태 척도 (cf. 특질자존감)**
- 코로나19 위기상황의 청년들의 자존감 변화 추이를 적절히 측정 가능

10

3. 연구방법 - 측정도구

2. 스트레스 대처방식척도

- Folkman & Lazarus (1985)의 "The Ways of Coping Checklist" 를 김정희(1988) 번안, 정유미(2004) 수정
- [적극적대처 (문제중심적 5) + (사회적지지추구 5)] + [소극적대처 (정서중심적 5) + (소망적사고 5)] = 총 20문항

3. 성인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 KS-A

- (일상생활장애 5)+(가상세계지향성 2)+(금단 4)+(내성 4)=총15문항
- 38점 이하 일반군 / 39~41점 잠재적 위험군 / 42점 이상 고위험군

표 1. 성인 자가진단 척도(KS-A)

하위구인	문항	문항번호
일상생활장애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학교 성적(업무 실적)이 떨어졌다.	1
	인터넷 사용 때문에 피곤해서 수업(업무)시간에 잔다.	5
	인터넷을 하다가 계획한 일을 제대로 못한다.	6
	피곤할 만큼 인터넷을 하지 않는다.	10
	인터넷을 하더라도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한다.	13
가상세계지향성	인터넷을 하는 동안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	2
	인터넷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쉽게 흥분한다.	7
금단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3
	인터넷을 할 때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난다.	8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11
	인터넷을 하지 못해도 불안하지 않다.	14
내성	"그만 해야지"하면서도 번번이 인터넷을 계속 하게 된다.	4
	인터넷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9
	일단 인터넷을 시작하면 처음에 마음먹었던 것보다 오랜 시간 인터넷을 하게 된다.	12
	인터넷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한다.	15

4.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N=378)

여성(55.8%)이 약간 많았으며, 20대(64.6%)가 30대에 비해 많았음.

학력으로는 대학 재학 및 졸업자가 대다수였음(72.3%).

월소득으로는 20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대부분(64.6%) 이었고, 미혼(84.4%)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167	44.2
	여성	211	55.8
연령대	20대	244	64.6
	30대	134	35.4
학력	중졸 이하	2	.5
	고졸	55	14.6
	대학재학	145	38.4
	대졸	128	33.9
	대학원 이상	19	5.0
	대학원졸	14	3.7
	기타	15	4.0
월소득(만원)	200이하	244	64.6
	200-300	70	18.5
	300-400	26	6.9
	400-500	18	4.8
	500이상	20	5.3
혼인상태	미혼	319	84.4
	결혼	52	13.8
	동거	5	1.3
	이혼	1	.3
	별거	1	.3

4. 연구결과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결과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자존감	1.58	3.95	2.98	.313	-.386	1.247
인터넷	17.00	48.00	35.47	5.450	-.514	.627
문제중심	1.00	5.00	3.33	.576	-.735	1.708
정서중심	1.40	4.80	3.16	.519	-.084	.284
소망사고	1.00	4.60	3.28	.523	-.510	1.235
사회지지	1.00	5.00	3.32	.608	-.443	.813

자존감은 평균 2.98(표준편차 .313), 인터넷중독 평균 35.47(표준편차 5.450)로 중간값에 가까운 수준이었음.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있어서는 문제중심 방식과 사회적 지지 방식의 평균이 3.33, 3.32로 가장 높았음. 이 두 변수는 적극적 스트레스방식 임.

한편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인 정서중심 방식과 소망적 사고방식은 3.16, 3.28로 비교적 낮았음.

왜도와 첨도는 정규성을 충족하는 결과를 보였음.

13

4. 연구결과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자존감	인터넷	문제중심	정서중심	소망사고
인터넷	-.352***	1			
문제중심	.050	.048	1		
정서중심	.208***	.207***	.367***	1	
소망사고	.087	.140**	.559***	.382***	1
사회지지	.143**	-.087*	.459***	.317***	.459***

자존감과 인터넷중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음.

자존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있어서 정서중심, 사회적지지 방식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문제중심 및 소망적사고 방식은 유의미 하지 않았음.

인터넷중독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는 정서중심 및 소망적사고 대처방식이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나타내었음. 한편 사회적지지 대처방식은 부적(-) 관련성을 보였음.

14

4. 연구결과

4) 사회적지지 추구 방식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문제중심, 소망적사고, 정서중심 효과 x)

① 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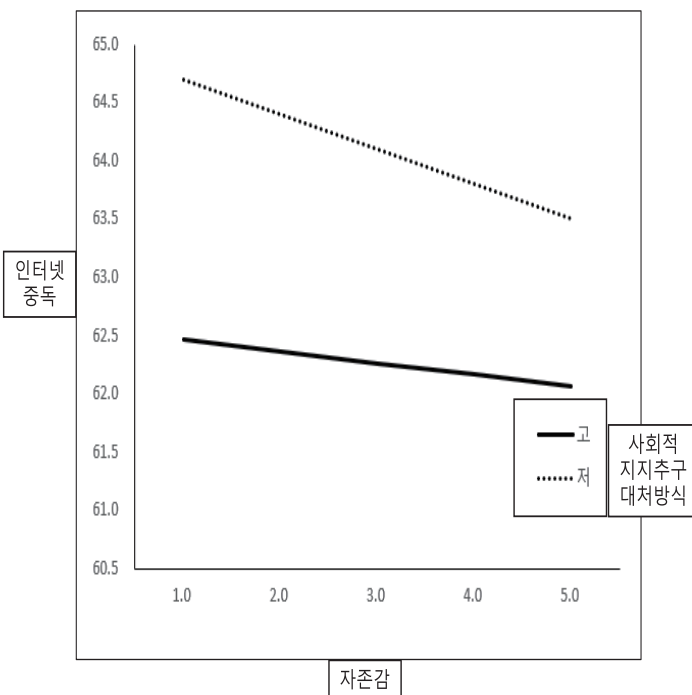
	coeff	se	t	LLCI	ULCI
상수	70.393	11.104	6.339***	48.535	92.251
자존감	-.735	.174	-4.215***	-1.078	-.391
사회적지지	-1.991	.608	-3.270**	-3.189	-.792
상호작용	.161	.010	3.005**	.011	.051

R²=.1969, F=6.912, p=.000

② 조절효과의 효과성

	coeff	se	t	LLCI	ULCI
-1 표준편차	-.302	.044	-6.943***	-.3888	-.2170
0	-.210	.034	-6.131***	-.2779	-.1428
+1 표준편차	-.118	.049	-2.429*	-.2132	-.0223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한 ①의 회귀모형에서 모델은 유의하였으며, 자존감x사회적지지 추구방식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음.
 조절효과의 기울기 차이는 다음 슬라이드의 그래프로 표시하였음.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인터넷중독은 낮아지고 있었음.
 한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 추구는 그 효과가 높은 집단(고 집단)에서 자존감의 인터넷중독을 낮추는 효과성이 완화되었음.
 이는 비정규직 청년의 자존감과 사회적지지 추구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상호작용하였을 때, 사회적지지를 추구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인터넷중독의 완화효과를 낮추는 기제가 됨.

5. 결론 및 논의

- 자존감↑, 인터넷중독 ↓
- 사회적지지추구 대처↑, 인터넷중독 ↓
- 자존감 x 사회적지지추구 ↑, 인터넷중독 ↓의 효과를 감소시켰음.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 비대면 소통의 일반화

• 사회적지지를 주고받는 장소의 변화 - 온라인

• 환경 속의 인간

코로나19 이후 학업/직업 상 이유로 온라인에 머무는 시간이 급증한 상황적/환경적 변화는 개인의 자존감이나 스트레스 대처방식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됨

17

5. 결론 및 논의

- 자존감↑, 인터넷중독 ↓
- 사회적지지추구 대처↑, 인터넷중독 ↓
- 자존감 x 사회적지지추구 ↑, 인터넷중독 ↓의 효과를 감소시켰음.

• 사회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 세대에게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일 수 있음

• 자존감, 스트레스 대처방식(사회적지지추구)과 인터넷중독에 대한 고전적인 이론적 배경에서 벗어나 비대면 온라인 환경으로 변화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환경적/상황적 변화요인에 적절하게 대응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논의가 필요

• 비정규직 청년들에 있어서 다만 일자리 문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밖에 없는 현실태를 진단하고 보다 다방면의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8

「비정규직 청년의 자존감과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조절효과」에 대한 토론

박보영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비정규직 청년과 관련된 발표의 토론을 맡아달라고 학회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MZ세대'(밀레니얼)였습니다. 이 세대는 <요즘 애들>의 저자 앤 헬렌 피터슨 (Anne Helen Petersen)이 지적하듯이 '부모처럼 살기 싫지만, 부모만큼 되기도 어려운 세대'로 요약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인 베이비붐 세대로부터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좋은 일자리를 얻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이른바 엘리트 중산층 모델)는 말을 술하게 듣고 자랐으나, 그것이 이미 철지난 얘기라는 것을 사회에 나가자마자 체득하게 된 세대입니다. 그들을 기다린 것은 높은 실업률과 최악의 취업난이었습니다. 박봉에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야 했고 부당한 처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채나 국가고시 등 표준취업경로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구는 전체의 10~15%에 불과하며, 85~90%의 청년은 중견·중소기업에서 일하거나 플랫폼노동 같은 비정형 노동, 자영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고 합니다(양승훈, 2021). 이는 대다수 MZ세대가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사회는 이런 MZ세대의 노동을 '이례적인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보편적인 삶을 경쟁에서 밀려난 소수 청년들의 삶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조형근, 2021). 그래서 MZ세대들은 불안하고 화가 나 있습니다.

이런 사회경제적 맥락을 살폈을 때 '비정규직 청년의 자존감' 문제를 다룬 이 논문의 의의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의성이 큰 연구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학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언해 보고자 합니다.

○ 이 발표는 비정규직 청년의 '정서심리적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

심리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자존감의 형성 및 작용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요인을 도외시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발표문에서는 학력과 소득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있는데, 학력과 소득이 비정규직 청년의 정서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과연 가깝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이와 연결해서 논의를 연결하자면, 이런 부분 때문인지는 몰라도 문제의식 및 주제의식이 명료하게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인지 양적연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합의에 기반한 제안’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일례로 이 발표문의 핵심 주장은 ‘비정규직 청년의 낮은 자존감이 정서심리적 대처방식에 따라 낮거나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론 부분에 이에 대한 실천적 합의와 제안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 싶습니다. 양적방법론을 활용한 사회과학 연구는 명제의 양적 검증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실천적 합의와 제안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하셨으면 합니다.
- 추가로, 서론에서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청년 노동시장의 어려움을 논하였는데, 그것이 본 연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주지의 사실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연구의 필요성이나 의의를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한 글

앤 헬렌 피터슨(2021). 요즘 애들: 최고 학력을 쌓고 제일 많이 일하지만 가장 적게 버는 세대, 박다솜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Petersen, A. H. (2020). *Can't even: How millennials became the burnout generation*. Mariner Books.]

김지훈(2021). 밀레니얼은 왜 불안하고 화났는가. 한겨레(2021.10.22).

-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016189.html> (검색일: 2021.11.22. 1:31)

양승훈(2021). 공장 찾아가기와 공장 벗어나기. 조문영 외, 문턱의 청년들. 책과함께.

조형근(2021). 수능 시즌의 라떼생각. 한겨레(2021.11.21.).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20168.html> (검색일: 2021.11.22. 1:35)

시와 노래의 상관성 연구

전병준(인천대)

시와 노래의 상관성 연구

- 김소월의 시와 김순남의 가곡을 중심으로

전병준(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서론

시와 노래는 본래 하나였다. 시가 따로 있고, 노래가 따로 있는 형태가 아니라 ‘시=노래’의 형태로 존재했다. 시 장르에 대한 역사적 구분으로 통용되는 고전시가와 현대시라는 명칭 자체가 이러한 사정을 여실히 드러내는데, 20세기 초반까지 시와 노래는 같은 것이었기에 시가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그 이후 시와 노래가 분리되어 시가 독서의 대상이 되며 현대시가 태동한 것이다. 20세기 초반 등장한 계몽가사와 신체시 등은 모두 운율의 절대적인 압박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시와 노래가 하나였던 사실의 또 다른 증거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현대시가 창작되기 시작하는 192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와 노래는 분리되기 시작하거니와 이 시기를 대표하는 김소월과 한용운과 이상화의 시가 이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김소월의 시는 전통적인 운율과 가깝고, 한용운과 이상화의 시는 그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시로부터 현대적인 시가 발생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의 현대시는 192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독서의 대상으로 위치를 얻게 되며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존재하게 되었고 다양한 변천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와 노래가 분리되었다고 하여 그 둘이 전혀 별개로 존재했다고 하기 힘든 것 또한 사실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김소월의 많은 시가 노래로 만들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운율감 있게 쓰인 시 다수가 노래로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다. 그만큼 시와 노래는 본래 하나였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까워지기도 멀어지기도 한 것이다.

본래 하나였던 시와 노래가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게 된 지 100년이 지나 이제는 그 둘이 하나였던 때가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요즘의 노래들을 듣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시보다도 훨씬 더 시적일 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처럼 시와 노래가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둘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특히 21세기 들어 한국의 노래가 동아시아를 넘어 아시아 전체와 유럽과 북미와 남미 대륙에까지 그 파급력을 지니게 된 지금에는 노래를 단지 대중의 오락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문학과 관련 아래, 특히 시와 상관관계 아래 파악함으로써 시와 노래를 새로운 지평 위에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대중문화의 다양한 장르가 젊은 세대의 관심과 향유의 대상이 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라면, 이를 문학의 가치 하락이나 의의 상실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와 노래, 혹은 문학과 대중문화의 관계를 새로이 새로이 고찰할 계기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문학이나 시의 범주를 활자 매체에 한정하여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에서도 문학성, 혹은 시의 특성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와 노래는 같은 데서 탄생하고, 오랜 세월 동안 한 현상의 다른 측면으로서 존재했던 까닭에 시와 노래를 분리하지 않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활자 매체인 시나 문학에 대해서보다는 영상 매체를 비롯한 다양한 대중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지닌 이들에게 그러한 현상의 기원이자 토대로서 시나 문학의 가치와 의의를 사고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방법도

고안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 기원으로서 노래가 있고, 아울러 시와 노래가 본디 하나였다는 것을 깨침으로써 시와 노래의 상호 연관성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이 교육 현장에서는 좀더 의미 있고 가치있는 활동이라 하겠다. 본 논문의 착안점이 여기인데, 시의 가치와 의의가 이전보다는 하락했다는 판단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이러한 판단을 전도시켜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시가 좀더 실질적으로 현대인의 삶의 배면에 깊숙이 배어 있는 것이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판단 아래 시와 노래의 연관성을 시론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작업으로 20세기 한국현대시사에서 노래로 만들어진 작품들을 살펴며 시와 노래, 문학과 음악의 관계 혹은 상호연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가운데 시를 노래로 만든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김소월의 시와 그에 곡을 붙인 김순남의 가곡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2. 「산유화」의 경우

김소월은 한국현대시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시인인 까닭에 그 역사적 의의와 가치, 혹은 위상을 파악하는 것은 본 논문의 논의를 많이 벗어난다. 본 논문은 시와 노래, 문학과 음악의 상호 연관, 단지 유사성에 기초하여 파악하기보다는 오늘의 시점에서 새로이 사유함으로써 그 현재적 의미를 추출해보고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시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김소월(1902~1934)은 스물세 살 되던 해에 127편의 시를 모아 『진달래꽃』(매문사, 1925)을 냈다. 그의 시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인의 감성에 잘 부합하여 많이 애송되었고, 다수는 노래로 만들어졌다. 한국어 특유의 음성적 자질에 기초하면서 전통적인 운율과 조화로운 비유를 사용하는 한편 여성의 사랑과 그 사랑의 상실에서 오는 슬픔과 고뇌를 잘 표현하여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순남은 1947년 김소월의 시 「바다」, 「그를 꿈꾼 밤」, 「산유화」, 「잊었던 마음」, 「초혼」 등 다섯 편에 곡을 붙여 가곡집 『산유화』를 발간했다.¹⁾ 모두 김소월의 시로만 이루어진 이 가곡집은 그리움과 이별 등을 노래하는, 전형적인 “낭만적인 서정 예술가곡”이다.²⁾ 김순남은 사회주의 활동과 월북한 이력 탓에 남쪽의 음악사, 혹은 문화사에서 자주 논의될 수 없었다. 음악학자 노동은의 작업으로 알려지고 그 의의가 인정받기에 이르렀는데,³⁾ 이러한 작업의 뒤를 이어 음악학 분야에서 김순남의 가곡을 연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⁴⁾ 그런데 음악학 분야의 연구는 주로 악곡의 형식 분석에 주목하고 있어 시와 노래의 상호연관성이라는 측면에서 김소월의 시와 김순남의 가곡을 연구한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본 논문은 악곡 형식 분석에 기초를 둔 음악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며 이를 시 분석과 결합하여 시와 노래의 현대적 결합 양상에 대한 시론적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김순남의 가곡집 『산유화』는 발표 당시 음악계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는데, 음악 비평계의 중요 인물인 박용구도 이를 “국제적 수준에서 겨누어 볼 수 있는 가곡”으로 손꼽

1) 김순남, 『산유화』, 백양당, 1948.

2) 김미영, 「해방기(해방 이후~6·25전쟁 이전)의 한국가곡」, 『20세기 한국가곡의 역사와 체계』, 민속원, 2018, 187쪽.

3) 노동은, 『김순남: 그 삶과 예술』, 낭만음악사, 1992.

4) 김순남 관련 연구 저작.

기도 하였다.⁵⁾ 이 노래를 초연한 성악가 박은용 또한 “조선 가곡의 여명은 왔다. 다가티 즐기자”라고 하면서 「산유화」에서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였든 민족적인 감성과 정신의 음악화가 해결되어 있다”⁶⁾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김순남의 가곡집에 실린 곡은 모두 다섯 곡이지만 김소월의 전통적인 감성과 운율이 김순남의 곡조와 잘 만나 시와 노래의 상호연관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산유화」이다. 우선 이 작품을 살펴본다.

산에는 꽃피네
꽃치피네
갈 봄 녀름업시
꽃치피네

산에
산에
픽는꽃춘
저만치 혼자서 피여잇네

산에서우는 적은새요
꽃치췌와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지네
꽃치지네
갈 봄 녀름업시
꽃치지네

- 김소월, 「산유화」 전문⁷⁾

김소월의 시는 전통적인 율격과 조화로운 비유에 바탕을 두어 쓰인 까닭에 아직도 한국인에게 널리 읽히는 시이다. 이상이 현대시의 실험 정신을 극한까지 수행했다면 김소월은 전통적인 운율과 비유에 많이 의존해서 시를 써서, 현대시의 양 극단에 이상과 김소월을 두고 좌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판단도 가능하다.⁸⁾ 20세기 이후 쓰인 한국의 현대시 가운데 이상의 시가 전통으로부터 가장 멀다면, 김소월의 시는 가장 전통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소월의 시 가운데 다수가 노래로 만들어진 것은, 단어와 구절의 반복, 혹은 유사한 문형의 반복에서 발생하는 리듬이 작용한 탓이 크다. 특히 위의 시는 단순한 구조와 유사한 문형의 반복으로 이미 음악이 내재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단순하다. 산에 꽃이 피고 지며, 그 산에 있는 새가 산에 사는 것은 꽃이 좋아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단순한 사실의 심층에는 좀더 깊은 영혼의 떨림과 삶에 대한 통찰이 있다.

이 시의 핵심은 계절의 변화와 같은 자연의 순환에도 도저히 사라지지 않는 고독에 있다. 산

5) 박용구, 「조선 가곡의 위치」, 『신천지』, 1948년 9월호.

6) 박은용, 「김순남가곡집 「산유화」를 보고」, 『자유신문』, 1947.12.17.

7) 김종욱 편, 『원본소월전집』, 흥성사, 1982, 564~564쪽. 시의 인용은 이 책을 따르는 까닭에 별도로 인용 표시는 하지 않겠다.

8) 김인환, 「이상 시의 계보」, 『기억의 계단』, 민음사, 2001, 276~299쪽.

에 꽃과 풀이 나고, 또 새와 짐승들이 오고 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거기에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는” “꽃”의 존재가 자연적 사물들의 연합과 배치를 이전과는 다르게 읽게 한다. 그동안 많이 이야기된 것처럼 이 구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만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인간과 자연의 거리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자연과 그 순환에 대한 시를 인간과 자연의 관계로 환치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독자와 해석자의 관점이 지나치게 개입하기 때문이다. 피고 지는 꽃과 그 꽃과 거리를 느끼는 새, 그리고 이들의 배경이 되는 산이 이 시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므로 여기에 관찰자로서 인간을 개입시켜 이해할 필요는 없다.

만물은 봄에 깨어나기 마련이니, 꽃이 “갈 봄 여름 없이” 피고 진다는 것은, 꽃의 개화와 낙화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의미이다. 어느 한 해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럴 것이다. 그것이 자연 순환의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존재론적 질서, 혹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규칙이 의미하는 것이다. 나서 자라다 결국 소멸에 이르는 것이 모든 지음 받은 것들의 운명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산에서 피는 꽃이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다는 구절에 이르면 분위기가 좀더 심화된다. 존재론적 질서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판단과 사유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가능하겠지만 시에 드러난 사실에 집중하여 읽으면 “저만치 혼자서”는 새와 꽃과의 거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꽃은 움직일 수 없으나 새는 움직일 수 있으니 이러한 움직임의 유무에 따라, 그 운동의 가능성에 따라 홀로 있음의 고독과 고통을 느낄 수 있겠다. 산에 꽃이 한 송이일 리 없고, 또한 새도 한 마리일 리 없으나 이 시에 드러난 사실을 따라 읽다 보면 오직 한 송이의 꽃과 한 마리의 새가 서로 멀리, 그러나 또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인지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있으니 서로의 존재를 알고 함께 있음을 깨칠 수 있지만,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니 단절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함께 있음의 기쁨보다는 홀로 있음의 쓸쓸함과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반복이 형성하는 리듬 때문이기도 하다. 비슷한 구절과 문형의 반복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려 있기보다는 닫혀 있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시의 처음과 끝이 “피다”와 “지다”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하다는 것은 이 풍경을 둘러싼 세계가 반복적 순환 아래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반복되는 시간의 흐름 안에 놓여 있는 달힘의 구조는 새로운 내일에 대한 희망보다는 어두운 전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김순남의 가곡은 김소월의 시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지만 두 가지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우선 네 연으로 구성된 시를 세 부분으로 분절하는데, 시의 1연과 4연은 독립적으로 두지만 2연과 3연은 한 부분으로 결합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허밍으로 처리하여 아련한 기분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주의하여 가곡의 노랫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없이 꽃이 피네 꽃이 피네
2.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3.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이 꽃이 지네 꽃이 지네, 아(허밍)

편의상 번호를 사용하여 가곡의 노랫말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가운데 부분은 곡의 흐름 상 끊임없이 한 부분으로 이어지게끔 작곡되었다. 시의 2연과 3연을 한 부분으로 구성하고 1연과 4연을 곡의 도입부와 결말부로 만든 것은 두 가지 점에서 특징을 지닌다고 생각된다. 우선 시에서 중요하게 해석된 “저만치 혼자서”라는 구절에 작곡가가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고, 2연과 3연에 등장하는 새와 꽃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오히려 중간 부분은 흥겨운 가락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새와 꽃의 관계, 혹은 세상 만물의 관계를 좀더 유쾌하고도 즐겁게 파악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곡의 처음과 끝은 유사한 선율로 만들어졌고 끝부분은 유장하게 작곡되었는데 이는 시와 유사하게 완결된 구조를 암시하는 동시에 이 노래에도 약간은 어두운 분위기를 드리우기에 충분하다. 시와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는 “아”라는 탄성으로 곡을 마무리짓는 것 또한 이러한 분위기를 강조하는 데 사용되었다. 특히 이 감탄사의 반주는 “꽃이 지네”의 그것과 같은 것인 까닭에 듣는 사람은 꽃이 진다는 비극적 상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 이 노래의 슬픈 감정을 한층 강화한다.

3. 「진달래꽃」의 경우

익히 아는 것처럼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한국인이 애송하는 시 가운데 하나이다. 동시에 이 시에는 여러 작곡가가 다양한 곡조를 붙이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 시와 노래가 한국적 정서에 잘 부합함을 보여주는 증거라 해도 될 것 같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말엽시 고향 보내드리우리다

寧邊에 藥山
진달래꽃
아름싸다 가실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거름거름
노한그숫출
삼분히즈러밧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죽어도아니 눈물흘니우리다

- 「진달래꽃」

「진달래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서 오는 슬픔과 회한을 잘 다루어 김소월의 시 가운데서도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시이다. 사랑으로부터 버림받더라도 순순히 보내주겠다고, 그리고 결코 눈물 흘리지 않겠다는 다짐에 들어 있는 반어와 역설이 이 시의 핵심이거니와 감정을 드러내면서도 억제하는 화자의 태도가 독자의 감성을 사로잡은 것이다. 이 시에는 슬픔의 감

정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강인한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라 잃은 상황에서, 사랑하
는 임이 떠난 상황에서 슬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감정의 변화에 단순한
절망으로 환원되지 않는 것이다. 괴로우니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토로에는 시대의
억압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거절과 저항이 담겨 있다. 슬픔을 슬픔으로 적극
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슬픔을 넘어서는 과정이 이 시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임은 떠났으나 결코 임을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집착에 가까운 사랑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면서도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는 초연함이 결합되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든다. 이 시가
온전히 퇴영적이고 부정적인 연가인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러한 특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 김소월은 자신의 세계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뼈 아프게 깨치며 현실의 고난
을 극복하기 위해 애썼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가 오래도록 사랑받으며 읽힌 데는 감정의 적절한 표출과 억제뿐 아니라 이 시
에 내재해 있는 음악도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전통적인 운율에 기대는 동시에 자연에
빚대어 표현한 비유는 이 시를 전통적인 서정시의 대명사가 되게 하였지만 배면에 놓여있는
음악이 이 시를 또한 노래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고통과 슬픔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과정은 김순남 작곡의 가곡에서도 적절히 표
현된다. 김순남은 「진달래꽃」을 작곡하면서 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적절한 반복을 통해 감
정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비극적인 분위기를 한층 강화하고자 하였다. 반복에 집중하여 노래에
쓰인 노랫말을 읊기면 다음과 같다.

1.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강조)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2. (흥겨운 반주)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답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느려짐) 가시옵소서
3.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강조, 급격한 상승)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느려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느려지며 끝남)
 (밑줄 표시는 반복을 의미함)

4연으로 구성된 김소월의 시는 김순남 작곡의 가곡에서는 3부의 형식으로 변한다. 위에서 살
핀 「산유화」와 유사하게 시의 2연과 3연을 한 묶음이 되게 작곡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곡의 특
징은 도입부에서 흥겨운 리듬으로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는 이별과 그 후의 상실을 묘사하는
노랫말과 대비를 이루어 이별의 아픔이 더 두드러지게 하기도 하고 또 오히려 그것을 약화시
키기도 한다.

「산유화」와 다르게 이 곡에서는 반복을 자주 사용한다. 이 반복은 주로 한 문장의 끝 부분을
그대로 반복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명령형과 미래형의 반복으로 모두 화자의 강인한 의지를
드러낸다. 겉으로 드러난 반복은 의지의 강조를 표현하지만 곡의 선율은 급격한 감정의 변화
를 표현하는 데 적절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결말부에 해당하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의 선율은 느려지면서도 급격한 감정을 분출시키는데 이러한 특징은 도입부
의 흥겨운 가락이 시의 내용과 맺는 이중적인 관계에 대해 결론을 내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
다. 결말부의 느려지면서 강렬해지는 호흡은 슬픔의 감정을 극도로 강조하는 데 기여하거나와
이러한 사정을 통해 추론하자면 도입부의 흥겨움은 노랫말의 내용이 지니는 슬픔과 대비됨으

로써 슬픔의 감정을 한층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김순남은 김소월의 시가 지닌 분위기를 잘 활용하면서도 적절한 변용을 가하는데 이러한 변용은 감정 분출을 절제하면서도 극적으로 드러내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4. 이후의 보충을 위하여

김소월의 시 가운데 노래로 새로이 태어난 것이 많다는 데 주목하여 시와 노래, 문학과 음악은 어떤 주고받음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 둘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사유해보고자 한 것이 본 발표문의 출발이었다. 김소월의 시 가운데 김순남 작곡으로 새로이 가곡으로 탄생한 곡이 꽤 되어 이들이 만든 시와 가곡의 만남을 문학적으로 또 음악적으로 살펴본 것이 본 발표문의 대강이었다. 김소월의 시는 감정을 분출하면서도 억제하여 독자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였고, 김순남의 곡은 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적절한 변용을 가함으로써 시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기능하는 노래와 음악의 의의를 창출하는 데 충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산유화」와 「진달래꽃」을 살펴보는 데 그쳤으나 이후에는 「초혼」을 살펴보는 작업을 통해 김소월의 시와 김순남의 가곡의 관계를 좀더 면밀하게 탐구해보고, 이를 통해 시와 노래의 관계에 대한 좀더 의미 있는 결과를 제출하고자 한다. 특히 「초혼」은 시도 그러하지만 곡 또한 강렬한 감정을 표출하는 까닭에 시와 노래의 관계를 살피는 데 좀더 좋은 소재가 되리라 생각된다.

<시와 노래의 상관성 연구>에 대한 토론문

박수현(공주대)

이 글은 “시와 노래의 연관성을 시론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우선 “김소월의 시와 그에 곡을 붙인 김순남의 가곡을” 중심으로 “시와 노래, 문학과 음악의 관계 혹은 상호연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와 노래, 문학과 음악의 상호연관은 언뜻 잘 알려진 듯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해명하기는 어려운 주제인데, 그것을 명료하게 논증하려는 이 글의 시도는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정하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여쭙어보겠습니다.

1. 연구 대상이 김소월의 시와 김순남의 가곡입니다. 한국 현대시에 곡을 붙인 가곡 또는 대중가요가 무수히 많은 가운데, 하필 김소월과 김순남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듯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2. 이 글은 “시와 노래, 문학과 음악은 어떤 주고받음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 둘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사유해보고자” 합니다. 한국 현대시사의 많은 부분에 걸쳐 시와 노래의 상관성 연구를 진척하실 의향마저 간접적으로나마 엿보입니다. 시와 노래가 밀접히 연관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폭넓게 이를 연구하고자 하신다면 꼭 이야기하고 싶은 무언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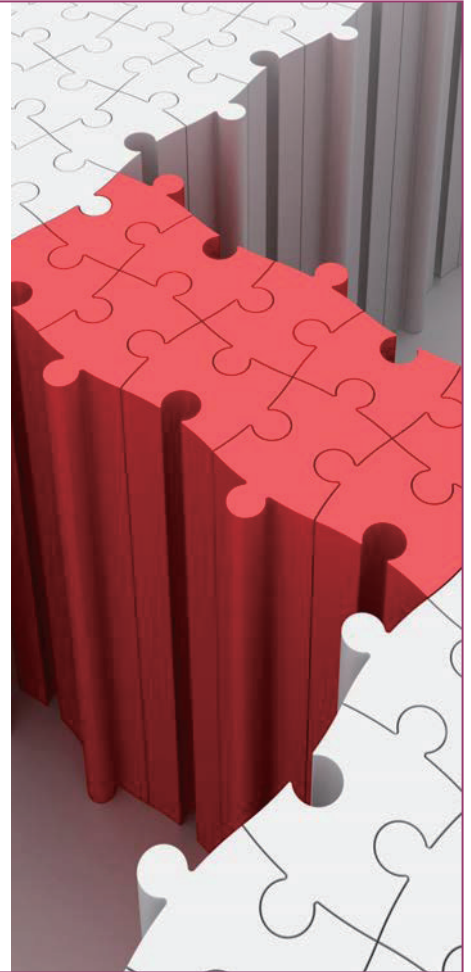
3. 글을 마무리하시며 향후 김소월의 「초혼」과 김순남의 「초혼」을 비교 연구하실 계획을 언급하셨는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현재 구상하고 계신 대강의 내용을 들을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Constitution of Identity of Second Generation Koreans in Germany

김광선(함부르크대 사회과학연구소)

A Research on the Identity of the Second Generation of Germany

Kwangsun Kim, University of Hamburg



CONTENT

- Second Generation and Identity
- Relationship between Germany and Korea
- Migration
- Analysis: Interviews

GERMANY AND KOREA

- November 26th, 1883
- 1950s rapid economic growth in Germany = lack of labor
- 'Gastarbeiter' (=guest worker)
- Labor migration wave
- Strict migration policy
- November 16th, 1963; recruitment agreement with Korea
- Mine worker and nurse

MIGRATION

- 'Silent Migration'
- Trouble-free migration?
- Successful migration?
- From 'labor generation' to 'elite generation'
- Attention in German society

SECOND GENERATION AND IDENTITY

- High education as a key
- Lack of attention from German society
- Identity confusion
- Korean household (inside), German society (out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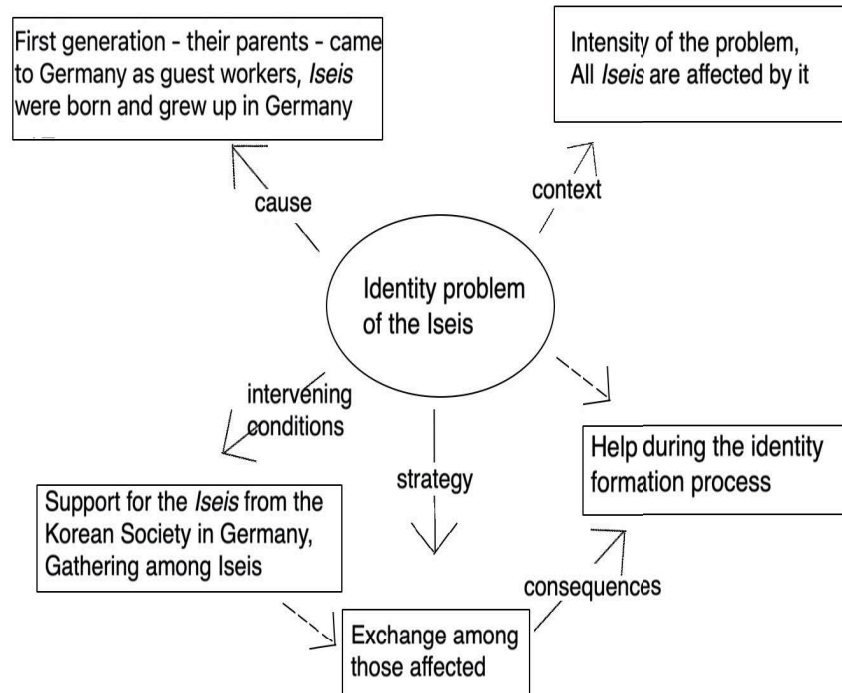
INTERVIEWS

- Korean-German weekly newspaper, Kyopo Shinmun
- 2016; Special Edition: '2sei'
- 11 Interviewees
- ' Finding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next generation of German mainstream society and the role of Korean society'

OPEN CODING

Interviewees	Contents
Baek	Formation of an association; Identity problem; Exchange of the problems; Solution of the problems: Bridge
Jung	Identity problem; Solution to the problem: film; Interest in its root, Korea
Kim	Formation of an association; Diversity, Announcement Korea; Love for Korea
Lee	Change of Korean society in Germany
Hyun	Announcement Korea; Problem <i>Isei</i> in Germany; Maintaining Korean culture
Park	Networking <i>Iseis</i> ; Korean Identity; Announcement Korea
Cho	Korean identity; Korean root
Lee	Helping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Korean school; Networking
Kang	Announcement Korea; Finding identity; Maintaining Korean culture; Networking
Gong	Other image; next generation; Networking
Han	Contribution to the Korean society; Exchange of both societies

AXIAL CODING



own coding paradigm according to Strübig 2004

SELECTIVE CODING

Code 1: Interest in Korea

Code 2: Activity in Germany

Code 3: Identity

A Study on the Formation of the Identity of Second Generation Korean-German Adolescents 토론문

양재석(성결대학교 외래교수)

1. 본 발제문은 재독 교포 2세 청소년들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로서 유럽 특히, 독일 교포 2세대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국내 논문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한국과 독일은 전쟁으로 인한 분단, 이에 따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관계 등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동화주의, 속인주의에서 다문화주의로의 변화한 이민정책에 있어서도 한·독 양 국가는 나름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저 출산과 가파른 고령화로 인구절벽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사한 배경을 가진 독일 교포 2세대 정체성에 관한 본 연구는 한국 이민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만큼의 연구의 시의성과 의의가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2. 본 발제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I.서론, II.이론적 배경, III.독일과 한국의 관계 현황, IV.분석방법 및 결과, V.나가는 글 순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이는 발제문의 연구주제인 재독 교포 2세대의 정체성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와 방법론으로의 근거이론의 적절성이 높고, 특히 경계인 또는 주변인이라는 개념은 발제자가 재독 교포 2세대의 정체성을 구체화 하는 관점으로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한국의 독일 이민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 배경과 1세대, 1.5세대, 2세대로 이어지는 심도 있는 분석은 연구주제를 이해의 폭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발제문의 구조가 주제를 명확화하고 부각시키는 틀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3. 본 발제문의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침묵의 이주’, ‘2세대’ 등의 핵심 포인트를 잡아 자세한 분석함으로써 독일 한국이민자들의 특성과 이민 사회문화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이는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구의 실증조사에 있어서 ‘교포 신문 특별판’을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직접대면 인터뷰나 FGI 조사를 통한 방법 보다는 발제자의 연구주제 핵심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세계적인 코로나19사태에서의 연구방법으로서의 선택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신문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다양한 시각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분석에 있어서 11개의 인터뷰 자료를 개방 코딩화 하였고 이를 다시 핵심현상을 보기 위해 축코딩화 하였고, 결과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 독일에서의 활동’, ‘정체성’의 세 가지 코드를 제시함으로써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독일교포 2세대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의 과정과 어려움이 있었는가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면서 결과론적으로 교포 2세대, 3세대들의 정체성의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 기초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4. 총평을 하면 본 연구의 주제가 상당한 시의성과 시사성을 가지고 연구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 됩니다. 서론부터 나가는 글까지 주제에 초점이 잘 맞추어져 있습니다. 단, 토론자가 후속연구로서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대면인터뷰를 통한 보다 명확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다른 이민자 그룹과의 비교 연구 예컨대, 같은 동양권 이민자 그룹이 될 수도 있고, 서양권 그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민 1세대 - 1.5세대 - 2세대 - 3세대로 이어지는 정체성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후속연구를 기대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발제자분의 연구와 발제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 본 발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며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첫 번째는 정체성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 한국과 독일 중 어느 국가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2) 두 번째는 한국도 이민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한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공적인 정책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